

‘정부 첫 실증·구매 구매 프로젝트’ 최우수상 차지… 포상금 1,500만 원 수여

- 중기부, 특별성과 포상…현장 체감형 4개 과제 11명에 3,800만 원
- 중앙부처 최초 도입한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책고객 참여형 정책평가회, 2회차 운영으로 성과 중심 공직문화 확산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7월 14일(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S6 네트워킹 행사장에서 ‘2026년 제2차 공무원 특별성과 정기포상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과제 11명에게 포상금 총 3,80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별성과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평가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최초로 정책 고객과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는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는 정책평가회를 도입하여 운영해왔다.

지난 4월 정책평가회에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 우수 정책성과 5건에 총 3,400만 원을 지급했고, 6월에는 ▲중동전쟁 대응 TF 등 국가적 현안 대응 성과에 총 8,400만 원의 수시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정책평가회를 통해, 특별성과 포상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중기부의 성과중심 조직 운영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19개 과제 가운데 전문가·정책고객 예선평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두 차례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4개 과제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대에 올라, 정책 추진 성과와 더불어 그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추진해 온 노력을 발표하며 뜨거운 경합을 벌였으며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 및 정책고객 평가 80%, 온라인 사전심사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사 결과, 신산업기술창업과 박종선 사무관 등 2인이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기획·추진을 통해 신산업 스타트업의 실증 기회 부족과 부처 간 지원제도 단절 문제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최우수상(1위)을 차지하여,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박 사무관 등은 기술개발 이후에도 현장 실증 기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조달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 실증 수요기관을 적극 발굴한 끝에 기술개발(R&D)-공공실증-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해외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하나의 경로로 재구성했다.

1차 로봇 분야 공모에는 5개 정부기관 20개 실증과제에 31개 스타트업이 신청해 13개 기업이 선정·지원을 받았으며, 2차 스마트시티 분야에는 18개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정부가 32개 실증과제를 제출해 공공 수요를 창출했다. 부처 간 분산된 제도를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하나의 경로로 통합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제도 혁신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종선 사무관은 “부처 칸막이 때문에 사업화 문턱을 넘지 못하던 스타트업들이 정부를 첫 고객으로 실증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이 공공에서 민간·해외로 이어지도록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2위)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채영 연구원 등 3인이 ‘골목형상점가 구역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다음 우수상(3위)은 소상공인성장추진과 강주실 사무관 등 5인이 ‘지역축제·관광·유통 연계 동행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축제·외국인 관광·대형유통망을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새로운 소비촉진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 원의 주인공들로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려상(4위)은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장용희 사무관이 ‘선착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용취약자금 우선도평가 도입’을 통해 선착순 접수 방식의 현장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성과 포상금 300만 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한편,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례가 많이 나와 매우 고무적이었다”며,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앞으로 알찬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책평가회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거둔 성과를 국민께 직접 평가받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정책을 추진해 온 중기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장	김승택 (044-204-7340)
		담당자	주무관	장재인 (044-204-7323)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제2회 특별성과 정기 포상 사례 요약

최우수상(1위) :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기획·추진

배경	신산업 스타트업의 현장 실증 기회 부족과 부처별 지원제도 단절로, 정부 R&D로 개발된 혁신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문제 발생
내용	정부가 직접 수요기관이 되어 실증부터 구매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체계를 설계, 기술개발(R&D)→공공실증→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해외실증으로 이어지는 단일 경로로 재구성
성과	1차 로봇 분야 13개 기업 선정·지원, 2차 스마트시티 분야 18개 기관 32개 과제 접수, 경찰청·소방청·국가유산청 등 5개 부처와 실증 추진 중
수상	신산업기술창업과 박종선 사무관, 김경은 주무관

우수상(2위) : 광주·전남지역 골목형상점가 구역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확대

배경	지자체·상인회의 미온적 반응으로 골목형상점가 구역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상황
내용	TF 설치, 가맹등록 신청 도우미 파견, 지자체 방문을 통한 조례 개정 독려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구역지정 확대 및 온라인 가맹등록 지원 강화
성과	지방청 관내 구역지정 82곳→773곳(전년 대비 842.7%↑), 가맹점 2,920개→38,851개(1,230.5%↑), 온누리상품권 사용 매출 평균 10% 증가
수상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호의·장진아 주무관, 안채영 연구원

우수상(3위) : 지역축제·관광·유통 연계 동행축제 개최

배경	중동전쟁·고유가 등으로 소비회복세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체감 소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소비촉진 접근이 필요
내용	전국 지역축제·외국인 관광·대형유통망을 연계한 새로운 소비촉진 모델을 구축, K-POP 상생콘서트 결합 및 71개 지역특화 프로그램·200개 유통채널 참여로 역대 최대 규모 동행축제 개최
성과	총매출 5,441억 원 달성(전년 대비 178억 원 증가), 중소·소상공인 역대 최대인 3만 6천 개사 참여, 외신 613개 매체·국내 언론 908건 보도 등
수상	소상공인성장촉진과 김혜남 과장, 강주실·박미란 사무관, 박성아·박찬영 주무관 포함

장려상(4위) : 선착순 문제 해결을 위한 신용취약자금 우선도평가 도입

배경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어 접수 개시 5분 만에 마감되고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반복,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문제 발생
내용	접수 방식을 '정책 우선도 평가'로 전환, 2일의 고정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신용도·정책자금 수혜이력·소재지·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창업 소상공인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
성과	4만 개사 이상이 장애 없이 신청 접수(기존 2~3천 명 내외), 저신용자 비율 31.6%→99%,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비율 49.7%→77.1%로 지원 취지 부합도 대폭 향상
수상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장용희 사무관